

# 롤랑 르 몰레의 《조르조 바사리: 메디치가의 연출가》

예술가 전기의 표본, 시대적 배경과 인물 간의 권력의 관계 조명



**미메시스**(Mimesis)는 본디 모사(模寫), 모방(模倣)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로 예술 작품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출판사 '열린책들'의 자회사로 예술 서적 전문 브랜드인 '미메시스'는 홈페이지에 "번역이 원본에 대해, 책이 사회에 대해, 번역이 시대와 사회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브랜드의 의미를 적고 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미메시스는 예술이 당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담아내고 있는 예술서들을 엄선해 꼼꼼한 번역을 통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최근엔 인물의 중요도와 지명도에 비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 중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들을 선정해서 '예술가 전기'라는 카테고리 책을 펴내고 있다.

## 정 팀장은 비리 총독 마녀 해의 가치

예술가 전기물 편집을 맡고 있는 열린책들 유럽문학팀 정은미 팀장은 "그 인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전기류의 저작물은 인물의 일반적인 생애는 물론, 감춰진 진면목을 소개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나온 《조르조 바사리: 메디치가의 연출가》의 주인공 조르조 바사리는 '그가 없었으면 르네상스 미술이 존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양 미술사를 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을 듣는 화가이자 미술사가다.

"치마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일생을 기록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사책이 바로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이죠. 바사리는 이 책을 통해 미술 비평의 언어와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 메디치가의 연출가》의 저자 롤랑 르 몰레는 프랑스 그르노블 스탕달 대학에서 이탈리아 문

학을 강의하는 바사리 연구 전문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바사리라는 인물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바사리는 피렌체의 이미지를 만들고, 군주의 정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시대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의 '기억'을 형성하고 남긴 사람이다. 붓과 돌과 글을 사용해 어떤 정치적·세속적·문화적 조직을 현양함으로써 바사리는 피렌체 신화의 창조자들에게 하나의 얼굴과 하나의 목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전체 분량이 700여 쪽에 이르는 미술가의 전기물을 낸다는 것은 제작 비용과 공력에 비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긴 힘든, 모험에 가까운 작업이다. 출판사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인 것이다. 정 팀장은 "이 책 뿐 아니라 앞으로 미메시스 브랜드를 달고 나올 모든 책들은 당장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는, 꼭 출간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내고자 하는 출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 각주 사전 배치 등 독자 위한 세심한 배려

이 책은 두꺼운 부피를 감당하고 오래 보관해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드 커버를 입히고 제본에 신경을 썼다. 정

팀장은 “꼼꼼한 번역 뿐 아니라 편집과 디자인에서도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고 했다. 책 뒷부분에 실린 메디치가(家)와 바사리가(家)의 복잡한 가계도는 인명 하나 하나 한글로 옮겼고, 인덱스 작업은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찾기도 쉽게 정리했다. 책 곳곳에 나오는 미술 용어, 인명 등도 역자가 세세하게 역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 외에도 원서의 각 장 말미에 붙어 있던 각주들을 각 해당 쪽의 하단에 배치해 찾기도 쉽게 한 것과 본문 아래쪽에 있던 쪽수를 가운데로 옮기고 눈에 쉽게 띄게 하는 등, 이 책에는 독자를 배려한 편집자들의 세심한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

“원서의 분량이 많은 경우 국내판에서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약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은 원서의 내용과 사진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책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고 싶어서죠.”

원서보다 국내판이 더 보기 좋아진 부분들도 있다. 일단 판형이 커져서 텍스트를 촘촘히 실으면서도 가장자리에 여백을 줘서 가독성을 살린 것과, 원서에서는 책의 한 가운데에 몰려 있던 사진들을 텍스트에 맞게 배치해서 내용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표지 디자인도 바사리의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간 원서와는 다르게 바사리의 사진을 전면에서 깔고 가장자리에 은박 문양으로 테두리를 둘러 고풍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했다.

#### 정 인물 다방면 조망, 예술가 전기의 표본 평가

정 팀장은 이 책이 “예술가 전기의 표본이라 할 만한 책”이라고 했다. 단순히 예술가의 생애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을 배경으로 바사리의 개인적 삶과 인생관, 업적,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 등을 담아내며 한 인물을 다방면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사리 전문가인 저자는 치밀한 연구와 풍성한 자료를 통해 한 인간, 뛰어난 예술가, 《미술가 열전》의 저자, 행정가로서의 바사리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부제 ‘메디치가의 연출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사리가 어떻게 피렌체의 신화를 만들어 나갔는지에 주목한다.

정 팀장은, “시대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인물을 조명하면서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탁월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 책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조르조 바사리: 메디치가의 연출가》를 통해 몰래는 바사리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조르조 바사리 《미술가 열전》을 소개하는 설명중인 알린책들 유럽문학팀 정은이 팀장

한다. “바사리가 《미술가 열전》을 통해 미술가들을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생하게 복원해 낸 것처럼 몰래도 그의 책을 통해 바사리를 당대의 예술과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

이 책은 예술가를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생동감 있는 문체와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인해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편집진은 혹여 시간에 쫓겨서 책 전체를 다 읽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메디치가〉를 다룬 부분의 일독을 권하고 있다.

“예술과 권력의 상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봉사하던 예술가의 위상 변화도 볼 수 있죠. 16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면 흔히 회화만 생각하는데, 당시의 화려한 건축이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을 보면서 건축의 사회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어요. 메디치가의 가신으로서 코시모 1세와 함께 16세기 이탈리아의 문화·예술 사업을 주도해 간 시대의 연출가로서 바사리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